

종교개혁의 필연성

- 중세말 로마 가톨릭 신앙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칼빈의 지적을 중심으로 -

임원택
(역사신학)

I. 칼빈이 사들레토에게 쓴 공개 답서와 『교회 개혁의 필연성』

1544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칼(Karl) 5세(1519-1556 재위) 주재로 슈파이어(Speyer)에서 제국 의회가 열렸을 때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교회 개혁의 필연성』이란 논문을 출판했다.¹⁾ 이에 앞서

1) John Calvin, *Supplex exhortatio ad Caesarem Carolum Quintum et Principes aliosque ordines Spiraie nunc imperii conventum agentes, ut restituendae ecclesiae curam serio velint suscipere* (1543), in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vol. 6 (Brunswick, 1867), 453-534; 영역(英譯),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racts relating to the Reformation*, trans. Henry Beveridge, vol. 1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 123-234. 본 논문은 Beveridge 영역의 단행본 판인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Dallas, TX: Protestant Heritage Press, 1995)를 사용함. 칼 5세에 대해서는,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ed. Samuel Macauley Jackson (Grand Rapids: Baker, 1951-1954), s.v. “Charles

1939년에 칼빈은, 제네바의 행정관들과 시민들을 향해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강조하며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추기경 야코포 사돌레토(Jacopo Sadoletto, 1477-1547)에게 쓴 공개 답서에서, 교회 하나됨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개혁자들이 왜 로마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나를 설명했다.²⁾ 『교회 개혁의 필연성』에서 칼빈은 사돌레토에게 쓴 답서에 밝힌 종교개혁의 대의를 훨씬 더 상세하고 충분하게 기술했다.³⁾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를 필두로 한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개신교회(改新敎會)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보편 교회(the Catholic Church)를 지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교회 보편성(catholicity)은 로마 교회가 주장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따라서 개신교회의 자기정체성 이해는 물론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는 참된 보편 교회 개념의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칼빈이 사돌레토에게 쓴 답서와 『교회 개혁의 필연성』은 교회 보편성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신교회의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정

V,” by A. H. Newman.

2) John Calvin, *Responsio [ad Sadoleti epistolam]* (1539), in *Opera*, vol. 5 (1866), 385-416; 영역, “Reply by John Calvin to Letter by Cardinal Sadolet to the Senate and People of Geneva,” *Tracts*, 1:25-68. 본 논문은 단행본 판인 John Calvin & Jacopo Sadoletto, *A Reformation Debate: Sadoletto's Letter to the Genevans and Calvin's Reply*, ed. John C. Oli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49-94를 사용함. 사돌레토에 대해서는,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s.v. “Sadoletto, Jacopo,” by K. Benrath.

3)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서와 『교회 개혁의 필연성』의 내용 관계는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의 Publisher's Introduction, 6-7면과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8, *Modern Christianity: The Swiss Reformation*, 3d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0;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94), 452를 참조할 것.

당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⁴⁾ 특별히 사둘레토에게 쓴 칼빈의 답서를 읽고 루터는 매우 기뻐했다.⁵⁾ 루터는 칼빈이 개신교 전체의 대변자 역할을 했으며 사둘레토에 대한 답서는 루터 자신이 밝히고 싶었던 입장을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라 여겼다.⁶⁾

사둘레토에게 쓴 답서에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었기에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 나옴은 교회 분립(schism)이 아니며, 도리어 로마 교회 자체가 참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기초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분파다. 또한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분리함은 초대 교회의 지지를 받는다. 초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규칙을 규정함에서 로마 교회가 아닌 개혁자들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개혁자들은 교회를 초대 교회 형태로 되살렸다. 그러므로 참된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고 개혁자들의 교회다. 후자가 초대 교회 전통 중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초대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는 복종한다. 교회의 궁극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참된 교회 일치는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까지도 찢고 부수어 버린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과 화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회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로마 교회에 계시지 않기에,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부라 여겨질 수 없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 분리함은 참된 가톨릭 교회에서 분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그들과 맞서 싸움이 개혁자

4)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8:398-413, 448-457.

5)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8:412와 David C. Steinmetz, "Luther and Calvin on Church and Tradition," chap. in *Luther in Context* (Grand Rapids: Baker, 1995), 87.

6) Steinmetz, "Luther and Calvin on Church and Tradition," 87.

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일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⁷⁾

교회 보편성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칼빈은 『교회 개혁의 필연성』에서는 중세말 로마 가톨릭 신앙의 잘못된 관행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대의를 확고히 한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교리와 성례, 교회 정치, 이 모든 점에서 심각한 잘못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개혁 의지를 갖기까지 냉정하게 행하고 있기에 종교개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II. 참된 교리의 회복

칼빈은 중세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교리(*doctrina*), 성례(*sacramenta*), 그리고 교회 정치(*ecclesia gubernanda*), 셋으로 묶어 지적한다. 교리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예배와 우리 구원의 근거 문제로 다시 나뉜다.⁸⁾

(1) 올바른 예배의 회복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나타나있지 않은 여러 모양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인간적 열심이다. 문제는 하나님 명령과 달리 인간의 의욕과 열심에 근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헛되다 여기심은 물론 명백히

7) Calvin, *Reformation Debate*, 49-94와 줄고, “종교개혁의 필연성: 교회 하나 됨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개혁신학』 11 (2001): 171-195.

8)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40-41; *Opera*, 6:473-474.

혐오하신다는 사실이다 (삼상 15:22; 마 15:9).⁹⁾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좇기보다 인간적 열심을 따라 행하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오염시켰다. ‘사람이 고안한 예배’(will worship, *ἑθελοθηρησκεία*)는 헛되며,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다.¹⁰⁾

칼빈은 성상숭배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 앞에 몹시 큰 죄라고 한다.¹¹⁾ 로마 교회에서는 우상숭배를 비난하면서도, 자기들이 성상에 표하는 경의는 예배가 아니라는 교묘한 이유를 둘러대어 성상숭배를 옹호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우상숭배(*idololatria*)라고 여기는 성상숭배를 저들은 성상숭경(*idolodulia*)이라 부른다.¹²⁾ 칼빈이 교활(*astutus*)하다고 일컫는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성상숭배를 옹호하기 위해 ‘예배’를 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들에 따르면, 흠숭(欽崇, *latria*)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최고의 예배(worship 혹은 adoration)다. 이에 비해 숭경(崇敬, *dulia*)은 성자들과 그 성상들 그리고 그 유골 등에 돌리는 숭배(veneration)다. 또한 특별 숭경(*hyperdulia*)은 여러 다른 성자들보다 동정녀 마리아를 더 높이기 위해 고안된 특별 숭배(*high veneration* 혹은 *special veneration*)다.¹³⁾ 하지만

9)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8.

10) Calvin, *ibid.*, & 96. *Opera*, 6:461 & 503 참조. *ἑθελοθηρησκεία*는 *ἑθέλω*(to wish)와 *θηρησκεία*(religious worship)의 복합어로 ‘스스로 고안한 예배’ 혹은 ‘불필요한 예배’를 뜻한다 (Harold K. Moulton, ed.,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Revised* [Grand Rapids: Zondervan, 1978], s.v. “*ἑθελοθηρησκεία*”).

11)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43. 94-95면도 참조할 것.

12) *ibid.*, 45; *Opera*, 6:476.

13)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 *Opera*, 6:463 과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4:442. 칼빈이 사용한 라틴어 *latria*, *dulia* 그리고 *hyperdulia*는, 샤프의 책에 나와 있듯이, 각각 그리스어 *λατρεία*, *δουλεία* 그리고 *ὑπερδουλεία*에 해당한다.

성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묘한 구분을 염두에 두었을 리는 만무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성상들에 돌리는 잘못을 범했다.¹⁴⁾ 칼빈은 성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증거들 뿐 아니라 초대교회 저자들의 글도 성상숭배가 우상숭배임을 지적한다고 주장한다.¹⁵⁾

성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성자숭배 혹은 성인숭배 (saint-worship)였다. 사람들이 성자들의 상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¹⁶⁾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성인들의 안내가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상상했다. 무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내키는 대로 성자들을 좇았다. 어떤 이는 마리아를, 또 어떤 이는 미기엘(Michael)을, 또 다른 이는 베드로를 골랐다. 그 목록에 그리스도는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성자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미신적 습관이 점점 스며들어와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 성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빌었다. 그들의 의도는 성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도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자주 이런 구분을 혼동하고 순간적 충동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다른 때는 성자들에게 기도했다.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정 영역을 할당했다. 누구는 비를 주고, 또 누구는 좋은 날씨를 주고, 어떤 이는 열병에서 구해주고, 또 어떤 이는 파선에서 구해준다는 식이었다. 이런 불경스런 이교도적 망상도 큰 문제였지만, 성자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성자들의 보호

14) *ibid.*, 21.

15) *ibid.*, 45.

16) *ibid.*, 43.

를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¹⁷⁾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지만 성자들은 중보 기도의 중재자들이라는 로마 교회의 주장을 칼빈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라 여긴다.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은 물론 기도에도 있어서도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¹⁸⁾

칼빈에 따르면, 개혁자들은 기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들을 바로잡았다. 우선 그들은 성자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함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되돌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으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신뢰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개혁자들은 사람들이 하여금 이전처럼 알지도 못하는 말로 혼동된 기도를 중얼거리는 대신에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¹⁹⁾ 참된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롬 10:14). 하나님 말씀이 기도의 유일하게 확실한 기초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분명하게 명하고 있으며,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유일한 중보자도 지명하셨다. 그러므로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불확실과 불신 가운데 요동함은 당연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²⁰⁾ 기도의 도움을 받겠다고 시작한 성자들에 대한 의존이 결국은 성자숭배로 나아간 것을 볼 때,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있어서도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칼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같은 자기 조상들을 기억해주시길 간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성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과 전혀 무관했다. 이스라

17) *ibid.*, 51-52.

18) *ibid.*, 98-99.

19) *ibid.*, 51.

20) *ibid.*, 53-55.

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자기 조상들을 언급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의 일환이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비준될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 *foedus gratiae*)을 구약의 족장들과 그 후손들이 그들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이다.²¹⁾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을 기억해달라며 기도함은, 죽은 조상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시고 훗날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비준될 언약에 호소함일 뿐이었다.

성상숭배, 성자숭배와 더불어 중세말에 만연한 또 다른 잘못된 성물(聖物, relics)숭배였다. 칼빈은 당시 사람들이 성물로 숭배했던 것들 몇을 예로 든다. 예수께서 받으신 할례의 유물 셋,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쓰인 못, 병사들이 제비뽑기했던 이음매 없는 통옷, 십자가 위에 붙었던 명패 둘, 예수 옆구리에 찔렀던 창 셋, 예수 시신을 썼던 아미포 등등,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 대부분 성자들의 시신 두 세 부분이 성물로 숭배되고 있었다. 특별히 칼빈은 속돌(輕石, 浮石, pumice stone, *pumex*) 한 조각을 베드로의 두개골이라며 오랫동안 모셔놓고 숭배한 곳을 대라면 델 수도 있다고 말한다.²²⁾

칼빈은 잘못된 예배의 개혁과 관련하여 당시 개혁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지적한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외적인 의식에만 국한한 잘못을 통렬하게 비난했지만, 그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그런 똑같은 경의를 사람이 고안한 찬박한 것들에 포함을 문제삼았다. 선지자들은 미신적 행위를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수많은 의식들은 손대지 않고 두었다. 그 의식들이 그 시대에는 유용하고 적절했기

21) *ibid.*, 53; *Opera*, 6:480-481.

22) *ibid.*, 46; *Opera*, 6:477.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인지라 의식들이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신자들의 가슴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현존하고 밝히 드러난 지금은 그런 의식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울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명하셨던 의식들을 이제는 영원히 폐지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갈 4:5; 골 2:4, 14, 17).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종류의 예배를 그토록 자주 또 그토록 엄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이 고안한 예배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재가 없는 새로운 예배를 금하셨음에도,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그 모두가 헛된 것이었고, 따라서 예배의 개혁이 절실했다.²³⁾

(2) 구원의 참 근거인 믿음

칼빈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과 개혁자들 사이에 가장 뿌리깊은 대립은 칭의(稱義, *iustificatio*)와 관련된 것이다.²⁴⁾ ‘의롭게 됨이 믿음에 의해서냐 혹은 행위에 의해서냐’라는 이 문제를 칼빈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 즉 이 문제의 논점은 ‘경건한 사람은 선행을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서는 선행을 받으시며 또 보상하시는가’가 아니다. 그 논점은 ‘선행 그 자체의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선행의 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선행은 죄책(*reatus*)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지불한 배상인가,’ 그리고 ‘선행이 구원의 근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²⁵⁾

23) *ibid.*, 47-49.

24) *ibid.*, 26; *Opera*, 6:465.

칼빈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며 영생을 물려받는 수단으로서,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의 행위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사람들에게 명하는 잘못을 비난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의무라도 지고 계신 듯 자기 행위의 공덕을 자랑하는 잘못이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획득해야 하며, 값없이 주시는 죄 사함으로가 아니라 선행의 보속(補贖, *satisfactio*)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화목케 됨도 값없이 주시는 용서로가 아니라 보속의 행위로라고 가르쳤다.²⁶⁾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칭의를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또 다른 치명적 잘못으로 이어진다. 로마 교회의 주요한 신앙 조목들 중 하나처럼 여겨졌던 이 가르침은 다름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종신토록 미결상태에서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믿음의 힘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은 파괴되고, 우리의 구원은 뒤엎어진다. 구원의 소망을 행위의 공덕에 둬므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올 것은 의심과 절망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⁸⁾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행위인가라는 논쟁의 뿌리에는 인간 의지의 자유와 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다. 로마 교회에도 원죄 교리는 있지만, 그들은 그 결과를 완화한다. 그들은 사람의 능력이 약화되었을 뿐,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최초의 부패에 더럽혀져 능력이 약화되고 올바르게 행할

25) *ibid.*, 26; *Opera*, 6:465.

26) *ibid.*, 26-27; *Opera*, 6:466.

27) *ibid.*, 27; *Opera*, 6:466.

28) *ibid.*, 27-28.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공헌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칼빈도 인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로 행함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는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로 물들었기에 인간 스스로는 올바르게 행할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²⁹⁾

선행의 가치와 공덕에 관해 칼빈은 선행 그 자체가 칭송받을 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상에 주실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선행에 관한 세 가지 예외 규정(*exceptiones*)을 제시한다.³⁰⁾ 첫째, 누구든지 그 행위가 어떠한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은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 의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그의 의인 것처럼 그에게 전가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자유로이 받아들여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음의 의(*iustitia fidei*)라고 부른다.³¹⁾ 둘째, 우리의 죄는 거저 용서받기에 우리는 죽음의 제사로 우리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하신 것 외에 다른 속죄를 인정하지 않는다.³²⁾ 셋째, 행위의 보상(報償)(*remuneratio operum*)은 행위 자체의 가치와 공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에 달려있을 뿐이다.³³⁾ 신자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구한 순결성은 항상 결여되어 있다. 공의의 엄한 규정으로 시험할 때 그것은 다소 불순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격을 받으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도 용납하시며 상을 내려주기까지 하신다.³⁴⁾

29) *ibid.*, 57-58.

30) *ibid.*, 59; *Opera*, 6:484.

31) *ibid.*, 59; *Opera*, 6:484.

32) *ibid.*, 62.

33) *ibid.*, 64; *Opera*, 6:486.

34) *ibid.*, 64.

III. 드리는 제사가 아닌 감사로 받을 성찬

로마 교회의 성례에 관해 칼빈은 사람이 고안해 낸 의식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반열에 함께 올라있는 잘못을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성례만을 정해주셨건만, 로마 교회에서는 단지 인간적 권위에 의존하여 아무런 구분도 하지 않고 일곱 성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는 로마 교회에서 지독하게 변조되었다.³⁵⁾

칼빈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고 상정하는 일곱 성례 중 다섯을 제거하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고안한 의식들이기 때문이다. 다섯 경우 중 혼인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칼빈도 인정한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명하셨지만 그것을 성례로 명하지는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성례와 사람이 고안한 의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례의 모든 능력이 의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단히 훼손하는 잘못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의식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것으로 그릇되게 상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³⁶⁾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이 고안한 의식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에 끼워 넣는 잘못을 범했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먼저, 세례에 있어서 칼빈은 로마 교회에서 덧붙여놓은 쓸모 없거나 미신적이고 유해한 것들을 개혁자들이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받아 후대에 전해준 세례 형태는 단순했으며, 이 단순함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나중에

35) *ibid.*, 29.

36) *ibid.*, 65.

여기에 기름과 소금, 침, 그리고 양초를 더했다. 점점 미신적이 되어 세례 자체보다 이런 부가물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³⁷⁾

칼빈은 로마 교회의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외적 행위에만 머무르고 그리스도께는 전혀 돌려지지 않는 앞뒤가 뒤바뀐 확신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표지의 효력(*efficacia signorum*)을 매우 치켜올림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신에 가시적 요소들을 신뢰하도록 가르쳤다.³⁸⁾

세례 시행과 관련하여 로마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세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성례를 시행할 때는 그것이 내포하는 교리와 더불어 그 유익과 적법한 용도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성례의 신비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 예식만 행하니 그것은 공허한 구경거리 일 뿐이다. 말씀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세례의 물은 요소에 불과하다.³⁹⁾

성례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극악한 잘못은 성찬에 관한 것이다.⁴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의 거룩한 징표(*sacra symbola corporis et sanguinis Domini*)를 함께 나누라고 명하셨지만, 로마 교회 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교(*excommunicatio*)라 부름이 더 적절할 것이다.⁴¹⁾ 왜냐하면 사제가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처럼 자기만을 위해 준비하고, 회중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따로 먹어치우기 때문이다.⁴²⁾ 결국 회중은 빈쪽 성찬만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잔을 주시고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다. 이에 반해 로마 교회에서는 신자들은 잔에 손을 못 대게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37) *ibid.*, 66.

38) *ibid.*, 66; *Opera*, 6:488.

39) *ibid.*, 66-67.

40) *ibid.*, 104.

41) *ibid.*, 29; *Opera*, 6:467.

42) *ibid.*, 29 & 68.

떨 수 없게 결합시킨 표지들(*signa*)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분리시켜 버린 것이다.⁴³⁾ 칼빈은 신지들의 잔 사용은 단지 허용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것인데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음은 사탄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다.⁴⁴⁾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서 너희 가운데 나누라’고 명하셨는데, 로마 교회 미사에서는 나눔(*distributio*)과 초청(*invitatio*)은 없고, 받음 대신에 바치는 시능을 한다.⁴⁵⁾ 사제들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는 마치 자신이 아론의 후계자라도 되는 양,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체 한다.⁴⁶⁾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명하신 적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받고 (*take, accipere*), 먹고(*eat, comedere*), 마시라(*drink, bibere*)고 명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임(*taking, receptio*)을 바침(*offering, oblatio*)으로 바꾸도록 허락했냐고 칼빈은 통박한다. 이런 변경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구하고 침범해선 안될 명령을 사람들의 고안에 굴복시키는 것이다.⁴⁷⁾ 그러므로 칼빈은 성찬을 순전하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성찬을 제사(*sacrificium*)로 여기는 불경한 상상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찬을 제사로 생각함은 그리스도의 명백한 제정에 반하는 봉헌(*oblation, oblatio*)의 전례(典禮)를 성찬에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이 봉헌 행위가 죄의 속죄(*expiatio*)라는 가장 치명적인 견해가 더해진다.⁴⁸⁾ 사제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승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을 중개자로 끼워 넣는다. 그리스도의 단번제(單番祭)의

43) *ibid.*, 30; *Opera*, 6:468.

44) *ibid.*, 68.

45) *ibid.*, 68; *Opera*, 6:488.

46) *ibid.*, 29.

47) *ibid.*, 29-30; *Opera*, 6:467.

48) *ibid.*, 67; *Opera*, 6:488.

효력(*virtus unci sacrificii*)을 말소해버리고 한 도시에서만 매일 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천 번이나 제물로 바쳐짐은 우리를 위해 한 번 죽으심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로마 교회에서는 이 모든 무례를 그리스도께 쌓아올려 성찬의 본질을 훼손했다.⁴⁹⁾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속해야 할 제사장의 존엄성이 사멸할 인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그들 자신의 행위로 옮겨져 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사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행한다는 것이다.⁵⁰⁾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헛된 구경거리로 바뀌어버렸고, 그리스도에게서 탈취한 영원한 제사장의 존엄성은 사람에게 주어졌다.⁵¹⁾

성찬을 제사로 그릇 이해함은 실체변화(*transsubstantiatio*)의 허구와 직결된다. 모든 성례(*sacramentum*)는 그것이 나타내는 영적 진리에 상응하는 가시적 징표를 갖는다. 성찬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것이 떡이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다만 우리 눈을 우롱하는 공허한 환영에 불과하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상응하는 가시적 표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칼빈은 묻는다. 또한 칼빈은 이 허구보다 더 나쁜 미신은 바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매달리듯 떡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떡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례는 신자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어서 함에도, 성찬의 거룩한 징표들이 전혀 다른 용도로 남용되어 사람들은 그것들을 응시하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잘못을 범했

49) *ibid.*, 104; *Opera*, 6:507-508.

50) *ibid.*, 67.

51) *ibid.*, 30.

다.⁵²⁾

떡을 신성하게 모셔놓거나 거양해서 숭배케 함은 그리스도의 제정하심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패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먹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이 자신의 살이요 우리가 마시는 것이 자신의 피라는 약속을 덧붙이셨다. 그러므로 떡을 따로 보존하거나 숭배를 위해 거양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 명령에서 떼어냄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살을 간직함은 자기들 스스로 고안한 우상(idolum)을 간직함에 지나지 않는다.⁵³⁾ 경건한 의식 대신에 과격한 주문으로 성별한 떡을 작은 상자에 넣어 두고는 때때로 그것을 거양하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그것에 경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닥치면 자기들을 지켜 줄 유일한 보호자처럼 그 떡으로 달려가 모든 사고를 막아주는 부적처럼 사용했다. 또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도 그 떡을 최고의 속죄 제물(piaculum)로 사용했다.⁵⁴⁾

성찬의 떡 자체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세례와 관련해서 이미 지적한 대로, 성례 표지의 효력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한다. 믿음이나 회개, 심지어는 그리스도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구원을 위해서는 성례 자체만으로 충분하거나 한 듯이(*si sacramenta sola ad salutem sufficerent*) 표지가 나타내는 것 대신에 표지 자체만을 붙잡는 치명적 미신 행위가 자행되었다. 만약 치명적 죄가 그 시행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성례 그 자체가 효능이 있다(*valere per se sacramenta*)는 불경스러운 가르침이 일반에 뿐 아니라 학계에도 퍼져있었다.⁵⁵⁾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성례

52) *ibid.*, 68-69; *Opera*, 6:489.

53) *ibid.*, 69; *Opera*, 6:489.

54) *ibid.*, 31; *Opera*, 6:468-469.

55) *ibid.*, 31; *Opera*, 6:468.

를 그 고유의 목적과는 달리 그 자체를 숭배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로마 교회의 성찬이 미신적 행위가 된 또 다른 이유는 화려한 의식만 있을 뿐 그 의식의 의미와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성례의 표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설명되지 않는다면 성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에게 고유한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제시한다면 그들은 외적 행위 이상을 볼 수가 없다.⁵⁶⁾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정당한 성별(*consecratio*)을 구성하는 공개적 말씀 선포 대신에 떡에다 증얼거리듯 속삭이듯 주문을 읽는다.⁵⁷⁾ 마치 의식을 거행할 때는 분명한 소리로 발음하기보다는 웅얼거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더 원하거나 하신 듯, 사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자신들이 신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행한다.⁵⁸⁾

이에 반해 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그 목적과 효력, 유익과 용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권함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의 내적 의미를 분별하도록 도왔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낯선 말로 웅얼거리며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시늉을 하는 대신에, 개혁자들은 사람들에게 성례를 설명하고 그 신비를 풀어주었다.⁵⁹⁾

IV. 목회자의 직무 회복과 도덕성 개혁

칼빈은 교회 정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목회 직무

56) *ibid.*, 31.

57) *ibid.*, 105; *Opera*, 6:508.

58) *ibid.*, 30.

59) *ibid.*, 70.

가 로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폐지된 상태에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주교와 사목지(司牧者)를 세우심은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교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가르침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참된 목자가 아니다. 하지만 칼빈 당시에는 사목자들 대부분이 가르치는 직무를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 오르는 이는 백 명의 주교 중 하나가 될까 말까였다. 주교는 세속 관리로 전락해 버렸다. 하위직 목회자들도 주교들의 예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본분과는 전혀 다른 천박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직무를 남에게 떠맡겼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영적 통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⁶⁰⁾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다가, 교회는 살벌한 칙령을 내려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교회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호되게 야단쳤다. 이렇듯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하는 치명적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⁶¹⁾ 성령께서 모든 주교들에게 가르침의 사명을 부과하셨기에,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목회자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를 주교로 지명함은 터무니없는 일이라 여겼다.⁶²⁾ 개혁자들은 사도적 규칙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목회직을 회복시켰다.⁶³⁾ 성경에서는 삶과 교리 둘 다에 관하여 성직 후보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⁴⁾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에 따라 성직자를 뽑지 않았다.⁶⁵⁾

60) *ibid.*, 32-33.

61) *ibid.*, 38.

62) *ibid.*, 73.

63) *ibid.*, 71.

64) *ibid.*, 72.

성직매매(*simonia*)의 만연은 심각했다. 선물이나 총애, 지저분한 아침이나 내밀한 추천 등의 수단으로 성직을 얻는 것이 성직매매이고, 규정상 그것은 벌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칼빈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성직으로 나아갔음을 지적한다. 고위 성직은 최고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열 두 살 소년이 대주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성직자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다. 한 사람에게 두 교회를 맡기는 법으로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년은 한꺼번에 세 주교직을 갖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그 교구들을 일년에 한번 돌까 맡았었다.⁶⁶⁾

로마 교회 성직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음란이었다.⁶⁷⁾ 칼빈에 따르면,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을 비난하는 세 가지는 아무 날이나 육식을 하도록 자유를 준 것, 성직자들이 결혼하도록 허용한 것, 그리고 비밀교회를 거부한 것이다.⁶⁸⁾ 이 셋 중, 고기 먹는 것에 관해서 칼빈은 항상 육식을 하든지 혹은 육식을 피하든지 자유라는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한다.⁶⁹⁾ 하지만 칼빈은 독신제도(*caelibatus*)와 비밀교회의 두 법은 영혼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인이라고 통박한다.⁷⁰⁾ 독신제도는 허용만 번드르르했을 뿐 실제로는 많은 사제들을 오입과 음란에 빠지게 했다.⁷¹⁾ 칼빈은 성직자들의 혼인 금지가 오래된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표명된 뜻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개혁자들과 함께 하고 또 그들의 견해를 분명히 지지하는데

65) *ibid.*, 35.

66) *ibid.*, 114-115; *Opera*, 6:513.

67) *ibid.*, 116.

68) *ibid.*, 79-80.

69) *ibid.*, 84.

70) *ibid.*, 81; *Opera*, 6:495.

71) *ibid.*, 34.

로마 교회가 자기들 입장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개혁자들을 트집잡음은 잘못이라고 덧붙인다.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한다(히 13:4)는 가르침은 분명하다. 또한 비율은 감독들을 남편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딤후전 3:2; 딤후 1:6), 혼인을 금지함은 “귀신의 가르침”(딤후전 4:1, 3)이라고 한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성직자의 독신을 고집함으로 훨씬 악한 상황을 만들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직자의 혼인은 극악한 죄라고 하면서, 성직자가 저지르는 백 번의 매춘 행위는 소액의 벌금에 처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독신 정책을 폈다.⁷³⁾

비밀고해와 관련해서 칼빈은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로마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일년에 한번 사제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는 죄용서 받을 희망이 전혀 없게 된다. 하지만 칼빈은 양심이 이렇게 속박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⁷⁴⁾ 칼빈은 비밀고해가 필수로 부과된 것은 교황 인노첸트(Innocent) 3세(1198-1216 재위) 이후로 본다. 그 전인 1200년 동안에는 이런 횡포를 기독교계가 알지도 못했다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라테란(Lateran) 회의(1215)에서 법령이 되었다.⁷⁵⁾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비밀고해의 문제점은 그것이 죄 용서에 필수라고 하여 비밀고해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양심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참회하는 제도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칼빈은 초대교회의 공개 참회

72) *ibid.*, 84.

73) *ibid.*, 86.

74) *ibid.*, 82-83.

75) *ibid.*, 86.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d ed., revis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s.v. “Innocent III (1160-1216)” & “Lateran Councils.”

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 신자들의 목에 씌워져 있던 횡포의 굴레를 제거하기 원했을 뿐이다. 죄의 고백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⁷⁶⁾ 그런 점에서, 비밀고해는 신자들의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사악한 굴레의 하나에 불과했다.⁷⁷⁾

로마 교회는 개혁자들의 교회에는 품행에 관한 교회법규(*disciplina*)도, 금욕(*abstinentia*)에 관한 법도, 겸손(*humilitas*)의 훈련도 없어서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벌도 받지 않고 사악한 길로 빠져든다고 비난했다.⁷⁸⁾ 하지만 칼빈은 초대교회 권징 법규의 일부가 로마 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뒤섞이고 폐허 속에 묻혀 그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렸으므로, 혼란에서 끄집어내기 전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공박한다.⁷⁹⁾ 품행에 관한 교회법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성직자들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 신자들과 관계된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엄격하게 성직자들에게 올바르게 순결한 행위를 요구했는지 묻는다. 초대교회 법규가 성직자들에게 규정한 순수하고 정제된 성결함을 로마 교회 성직자들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이 사라진 것은 이미 여러 세대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로마 교회 성직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만 평범한 품위일 뿐이다. 순전한 삶으로 구별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파렴치한 타락으로 욕을 먹지는 말아야 하겠기 때문이다.⁸⁰⁾ 이에 반해,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를 간직하게 된 사람들은 훨씬 더 순결하고 고결하며 성결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⁸¹⁾

76) *ibid.*, 87-88.

77) *ibid.*, 37 참조.

78) *ibid.*, 108; *Opera*, 6:510.

79) *ibid.*, 113.

80) *ibid.*, 113-114.

81) *ibid.*, 111.

로마 교회는 개혁자들이 교회 재산을 세속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떠들 어댔다. 칼빈도 교회 재산을 세속적 용도로 전환함은 당치않은 일임을 인정 한다.⁸²⁾ 주교가 검소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교회 재산이 점점 늘면서 교회 수입은 넷으로 나누어 쓰도록 규정되었다. 첫째는 주교가 여행 자나 손님 접대 그리고 곤궁한 이들 구제를 위해 쓰고, 다음은 성직자들을 위해 쓰고, 셋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마지막은 교회 수리를 위해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세 주교들은 맞수인 군주들과 경쟁하기 위해 휘황 찬란한 옷을 입고, 사치스런 탁자를 들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자기들의 건물을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 재산을 훨씬 더 수치스러운 것들에 낭비하고 탕진했다. 교회 재산을 투쟁이와 매춘 부에게 사용했으니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⁸³⁾ 로마 교회의 이렇듯 잘못된 재정 사용에 비해 개혁자들이 지도하는 교회의 재정 사용은 훨씬 건전했다. 칼빈은 개혁자들의 경우에도 전혀 흠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그들은 로마 교회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낮고 거룩하다고 주장한다. 먼저는 양떼들에게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참된 목회자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지원했다. 이전에 병원이 없던 많은 곳에, 수도원 대신에, 병원을 건설했다. 또 다른 곳들에는 새로운 학교 를 세우고 교사들에게 봉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젊은이들을 교육해 장 래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했다.⁸⁴⁾ 주교들의 온갖 사치와 사제들의 오만에 사용되던 교회 재정을 말씀 설교자의 생활비와 병원과 학교 지원에 사용함이 교회 재정의 세속적 전용이랄 수는 없는 것이다.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에게 퍼붓는 가장 심한 비난은 교회 분열(*discessio*)

82) *ibid.*, 118.

83) *ibid.*, 119.

84) *ibid.*, 123-124.

이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 하나됨이 깨뜨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⁸⁵⁾ 로마 교회에서는 아무리 진리의 가르침이 부패하고 수많은 오점들로 기독교 전체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개혁자들을 비난했다.⁸⁶⁾ 칼빈도 교회 하나됨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깨뜨림은 저주를 받아 미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빈이 추구하는 교회 하나됨은 진리 위에 서있는 교회 하나됨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됨을 끌어오는 원리는 ‘한 주(主),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만유(萬有)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엡 4:5-6)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영이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믿음의 끈으로 서로 묶인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롬 10:17)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한 가르침에 동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을 때만 거룩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⁸⁷⁾ 하지만 로마 교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가르침과 미신이 가득 차있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함으로 거짓 평화를 획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⁸⁸⁾ 칼빈은 참된 교회는 그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있지 않은 교회이며,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인친 복음의 가르침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질서가 잡힌 교회의 불변적 특징은 건전한 교리의 설교와 성례의 순전한 시행이라고 한다.⁸⁹⁾ 그것들은 다름아니라 교회의 표지들이다. 참된 교회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교회 하나됨의 참 끈은 하나님 말씀인데, 로마 교회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떠남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85) *ibid.*, 124-125; *Opera*, 6:518.

86) *ibid.*, 88.

87) *ibid.*, 129.

88) *ibid.*, 89-90.

89) *ibid.*, 127.

교회 하나 됨으로 나아감이다.⁹⁰⁾ 칼빈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설파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도 로마 교회가 아니라 개혁자들의 편이라고 덧붙인다.⁹¹⁾

칼빈은 교리와 성례, 그리고 교회 정치,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교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엄청난 위험 때문에 무수한 영혼들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⁹²⁾ 로마 교황과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사욕을 좇고만 있기에 교황의 승인을 기다려 개혁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⁹³⁾ 교황은 그의 행위로 볼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도, 베드로의 계승자도 아니고 오히려 적그리스도(*Antichristus*)라고 칼빈은 주장한다.⁹⁴⁾ 그냥 두면 최종적 파국이 멀지 않았기에 개혁이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었다.⁹⁵⁾

마침내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에 맞서 개혁을 단행했다. 칼빈에 따르면, 교리나 성례, 그리고 교회 정치 그 어느 것이든지 개혁자들이 이전 상태에서 바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적합한 표준에 되돌리기 위함이었다.⁹⁶⁾

V. 맺는 말

『교회 개혁의 필연성』에서 칼빈은 16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교

90) 줄고, “종교개혁의 필연성: 교회 하나 됨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174-182와 186-194 참조.

91) *ibid.*, 126. 개혁자들에 대한 초대 교회의 지지에 대해서는 줄고, “종교개혁의 필연성: 교회 하나 됨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182-186 참조.

92) *ibid.*, 138.

93) *ibid.*, 145-146.

94) *ibid.*, 135; *Opera*, 6:524.

95) *ibid.*, 150.

96) *ibid.*, 40-41.

리, 성례, 그리고 교회 정치의 면에서 지적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밝히 드러내었다. 성상숭배와 성자숭배, 그리고 성물숭배 등,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고안한 미신적 의식들이 로마 교회에 가득 차있었기에, 올바른 예배의 회복은 개혁의 최우선적 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개혁자들은 구원은 선행이나 인간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왜곡되었던 칭의 교리를 바로 잡았다. 성례에 있어서 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성찬이 로마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단번제의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개혁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본연의 직무를 회복시키고 성직매매와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자의 도덕성 개혁을 촉구하였다. 개혁자들의 이러한 총체적인 교회 개혁은 그들의 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나간 분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교회의 허상을 대신하는 참 교회임을 나타낸다.